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실천합니다.

☆ 주식시장의 바탕인 실물경제 변화를 투자 비중에 반영합니다.

☆ 안정성과 수익 달성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최초 설정일 | 2012.03.28 운용 기간 | 2017.06.28~2017.09.27

최근 3개월 수익률 -0.84% <small>(비교지수 -0.68%)</small>	최근 1년 수익률 17.61% <small>(비교지수 13.63%)</small>	최근 5년 수익률 27.51% <small>(비교지수 18.77%)</small>	2016년 수익률 7.83% <small>(비교지수 3.21%)</small>
연초 이후 수익률 15.36% <small>(비교지수 15.40%)</small>	총자산 54,590 백만 원 <small>(전분기 대비 17.58% 감소)</small>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

1이 펀드는 최근 결산일(2017년 3월 27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할 연환산 표준편차가 11.08%로 산출되어 6단계 위험 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를 통한 실세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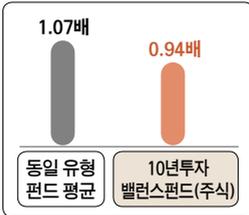
2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는 장기 가치 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 = 주가/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 = 주가/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6.08~2017.07)
 ※ 동일유형펀드 액티브주식일반 공모펀드(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Vol.22
2017.06.28~
2017.09.27

경험에서 얻은 교훈,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기회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빈번한 쓸림 현상 이후 시장은 언제나 소외된 가치에 눈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주춤거리는 주식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 또한 시작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과 힘을 더욱 갈고닦겠습니다.

장기가치투자 대표운용사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시작하자!
10년 투자

배준범 자산운용1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양극화 심해지는 상황 속 투자 원칙 지켜 성과 높여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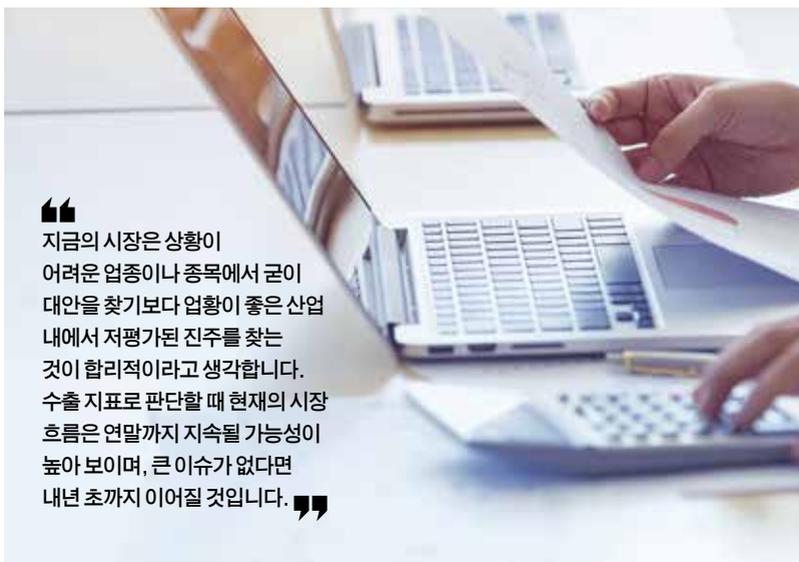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KOSPI는 8월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9월에 바로 반등하여 상승 흐름이 견재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더니, 10월 들어서는 다시 역사적 고점 경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IT 업종의 독주, 두 번째는 시장 양극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IT 업종의 독주 지속돼

장기간 시장을 주도해온 IT 업종은 업황 및 주가가 고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승 기간이 길었고 상승 폭도 컸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8월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IT 업종에 집중되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는 국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가격 및 수출 지표의 호조로 판단할 때 고점 논란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IT 업종과 함께 8월에 조정을 받았던 KOSPI는 9월에 IT의 강세 전환에 힘입어 하락분을 거의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의 독주와 맞물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관심은 상승 국면에서 IT의 파트너 찾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확장 국면의 일반적 패턴을 생각한다면 경기 민감 업종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난 3개월은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IT, 제약바이오, 일부 경기 민감주만 상승세

그리고 IT의 독주와 함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시장 양극화입니다. IT의 강세로 대표되는 업종 간 양극화도 강하게 나타났지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성과 격차도 극심했습니다. 이는 중소형주의 이익 흐름이 대형주 대비 부진한 가운데 2014~2015년의 자금 유입이 유출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수출주와 내수주의 성과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는 등 많은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우선 수출 경기를 좌우하는 글로벌 환경이 예상 대비 좋은 흐름으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정부의 정책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시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형 IT와 일부 경기 민감주 및 제약 바이오가 주도하는 현재의 시장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주는 2013년부터 2015년 여름까지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만 2년 가까운 침체로 그동안 이론 성과를 전부 반납하는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 지금의 시장은 상황이 어려운 업종이나 종목에서 굳이 대안을 찾기보다 업황이 좋은 산업 내에서 저평가된 진주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지표로 판단할 때 현재의 시장 흐름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큰 이슈가 없다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

업황 좋은 산업 내의 진주 찾는 투자

지금의 시장은 상황이 어려운 업종이나 종목에서 굳이 대안을 찾기보다 업황이 좋은 산업 내에서 저평가된 진주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지표로 판단할 때 현재의 시장 흐름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큰 이슈가 없다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치투자자에게 어려운 시장 환경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업종에 고르게 투자하는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의 원칙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수익률로 3개월 후에 찾아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산운용1본부장 배준범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자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펀드**입니다.
-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주식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의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증권 |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기타 | 펀드온라인코리아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A9304
클래스 A	A9305
클래스 A-E	A9306
클래스 C	A9307
클래스 C2	A9308
클래스 C3	A9309
클래스 C4	A9310
클래스 C-E	A9311
클래스 C-F	A9312
클래스 S	AP749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KB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티스

- 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한국밸류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의 자산 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KB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표로 보는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

자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6.27)	금분기 말(2017.09.27)	증감률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 (주식)(모)	자산 총액	66,238	54,590	-17.58
	부채 총액	1,367	626	-54.20
	순자산 총액	64,870	53,964	-16.81
	기준 가격	1,120.69	1,111.24	-0.84
종류(class)별 기준 가격 현황				
클래스 A	기준 가격	1,097.72	1,084.61	-1.19
클래스 A-E	기준 가격	1,106.26	1,094.07	-1.10
클래스 C	기준 가격	1,083.96	1,069.42	-1.34
클래스 C2	기준 가격	1,090.03	1,075.93	-1.29
클래스 C3	기준 가격	1,096.08	1,082.80	-1.21
클래스 C4	기준 가격	1,100.86	1,087.78	-1.19
클래스 C-E	기준 가격	1,099.25	1,086.84	-1.13
클래스 C-F	기준 가격	1,110.38	1,098.98	-1.03
클래스 S	기준 가격	1,091.50	1,079.43	-1.11

• 기준 가격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 수령 시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펀드 순자산 총액÷수익증권 총회수)×1000

기간 수익률

(단위: %, %p)

펀드명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017.06.28~ 2017.09.27	2017.03.28~ 2017.09.27	2016.12.28~ 2017.09.27	2016.09.28~ 2017.09.27	2015.09.28~ 2017.09.27	2014.09.28~ 2017.09.27	2013.09.28~ 2017.09.27	2012.09.28~ 2017.09.27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0.84	8.50	16.99	17.61	21.79	11.20	27.51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6)	(-0.61)	(2.39)	(3.98)	(1.60)	(-4.55)	(8.74)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18.77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1.19	7.76	15.80	16.02	18.48	6.68	19.1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51)	(-1.35)	(1.20)	(2.39)	(-1.71)	(-9.07)	(0.33)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18.77							
클래스 A-E	-1.10	7.95	16.11	16.43	19.31	7.80	21.0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2)	(-1.16)	(1.51)	(2.80)	(-0.88)	(-7.95)	(2.26)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18.77							
클래스 C	-1.34	7.46	15.33	15.41	17.18	5.00	15.94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6)	(-1.65)	(0.73)	(1.78)	(-3.01)	(-10.75)	(-2.83)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18.77							
클래스 C2	-1.29	7.63	15.58	15.69	17.69	5.58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1)	(-1.48)	(0.98)	(2.06)	(-2.50)	(-10.17)	-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							
클래스 C3	-1.21	7.77	15.79	15.96	18.19	6.20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53)	(-1.34)	(1.19)	(2.33)	(-2.00)	(-9.55)	-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							
클래스 C4	-1.19	7.78	15.84	16.06	18.51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51)	(-1.33)	(1.24)	(2.43)	(-1.68)	-	-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							
클래스 C-E	-1.13	7.90	16.02	16.30	19.01	7.41	20.28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5)	(-1.21)	(1.42)	(2.67)	(-1.18)	(-8.34)	(1.51)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18.77							
클래스 C-F	-1.03	8.11	16.36	16.77	20.04	8.81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5)	(-1.00)	(1.76)	(3.14)	(-0.15)	(-6.94)	-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							
클래스 S	-1.11	7.94	16.16	16.49	19.37	7.93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3)	(-1.17)	(1.56)	(2.86)	(-0.82)	(-7.82)	-							
비교지수	-0.68	9.11	14.60	13.63	20.19	15.75	-							

• 비교지수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는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비교지수((KOSPI×90%)+KCD금리×10%)를 사용했습니다.
•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투자 실적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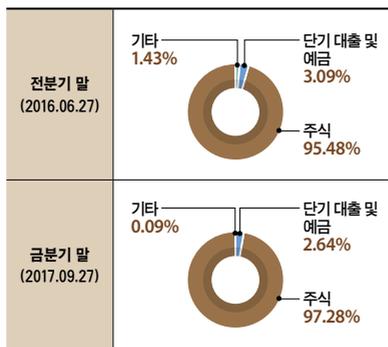
구분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전분기	8,942	6	0	8,948
금분기	-456	4	-1	-452

자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	53,104 (97.28)	1,439 (2.64)	47 (0.09)	54,590 (100.00)

• () 안의 숫자는 구성 비율로, 총자산 중에서 각각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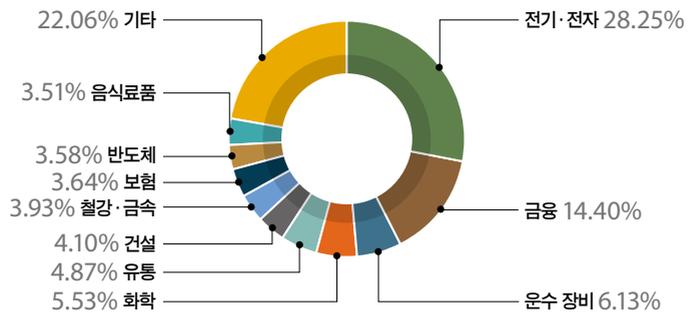
(단위: 주, 백만 원, %)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삼성전자	4,620	11,938	21.86
SK하이닉스	33,126	2,730	5.00
SK이노베이션	10,712	2,094	3.83
SK	6,032	1,731	3.17
POSCO	5,300	1,651	3.02

• 비중 (평가액÷총자산)×100
• 펀드 자산(주식, 채권, 기타 자산 포함)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 총액의 5% 초과 보유 종목 및 발행 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보유 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 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의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비중

• 이 그래프는 기준일 현재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업종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Comment! 전기·전자업과 금융업 비중 늘고 운수 장비업 비중은 줄어

이번 분기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 포트폴리오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전기·전자업과 금융업 비중은 높아지고, 운수 장비업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전기·전자업은 직전 분기 26.17%에서 이번 분기 28.25%로, 금융업은 5.13%에서 14.40%로 각각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운수 장비업은 8.88%에서 6.13%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투자 비중 상위 종목에는 SK, 롯데케미칼, 삼성화재, 현대산업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 (2017.06.27)		금분기 말 (2017.09.2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1호 (주식)(모)	자산운용회사	150.14	0.16	97.91	0.16	
	판매회사	클래스 A	40.77	0.18	36.58	0.18
		클래스 A-E	1.76	0.09	1.84	0.09
		클래스 C	1.64	0.33	1.81	0.33
		클래스 C2	0.47	0.28	0.39	0.28
		클래스 C3	4.40	0.23	0.99	0.23
		클래스 C4	42.40	0.18	33.75	0.18
		클래스 C-E	3.11	0.13	3.03	0.13
		클래스 C-F	2.83	0.01	1.08	0.01
	클래스 S	0.02	0.09	0.02	0.09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	6.93	0.01	4.52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4.16	0.01	2.71	0.01	
	보수 합계	258.63	1.67	184.63	1.67	
	기타 비용	1.01	0.00	0.81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 매매 중개 수수료	16.51	0.02	13.39	0.02
조사 분석 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38.28	0.04	31.06	0.05	
합계		54.79	0.06	44.45	0.07	
증권거래세	140.13	0.15	51.76	0.09		

•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 평균) 대비 비율.
• 기타 비용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성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된 것입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 환산,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합계
한국밸류 10년투자 밸런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모)	전분기	0.00	0.24	0.24
	금분기	0.00	0.30	0.30

종류(class)별 현황	전분기		금분기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클래스 A	1.40	-	1.40	1.40
	1.40	-	1.40	1.40
클래스 A-E	1.05	-	1.05	1.05
	1.05	-	1.05	1.05
클래스 C	2.00	-	2.00	2.00
	2.00	-	2.00	2.00
클래스 C2	1.80	-	1.80	1.80
	1.80	-	1.80	1.80
클래스 C3	1.60	-	1.60	1.60
	1.60	-	1.60	1.60
클래스 C4	1.40	-	1.40	1.40
	1.40	-	1.40	1.40
클래스 C-E	1.20	-	1.20	1.20
	1.20	-	1.20	1.20
클래스 C-F	0.73	-	0.73	0.73
	0.73	-	0.73	0.73
클래스 S	1.04	-	1.04	1.04
	1.05	-	1.05	1.05

• 총보수비용 비율(Total Expense Ratio) 운용 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타낸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 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를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타낸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 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매매 주시 규모 및 회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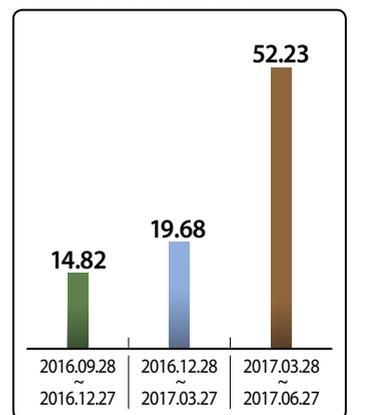
(단위: 주, 백만 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76,499	5,024	480,173	17,254	29.53
				117.16

• 매매회전율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Comment! 이번 분기 매매회전을 29.53%로 직전 분기보다 낮아

10년투자 밸런스펀드(주식)의 이번 분기 매매회전은 29.53%로 직전 분기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은 소폭 감소했고, 주식 매도 금액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으로 주식 매도가 늘었지만 이번 분기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하락을 통해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높아진 종목을 신중히 선별하여 편입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불황 기간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는 어떻게 변했나?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 기간 동안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본 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 자료 '우리나라 투자자의 펀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펀드 투자자 조사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펀드 투자 규모는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펀드 설정액은 금융 위기 이후 2009~2011년 약 60조 원 이상 감소해 298조 원까지 떨어졌으나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개인 펀드 투자자들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1 금융 위기 겪으며 안정형, 안정 추구형 성향 높아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펀드 투자자 조사'의 연도별 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펀드 투자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2013년 38.7%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28.7%까지 떨어졌고,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6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32.4%가 현재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은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과 이후인 2011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 사이에 매우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적극 투자형이라고 답한 투자자가 3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1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안정 추구형이라고 답한 투자자가 크게 늘어 각각 36.7%, 4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융 위기 이전 시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투자보다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했으나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민감해졌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07년	2011년	2016년
안정형	24.9	38.6	33.3
안정 추구형	27.4	36.7	42.2
위험 중립형	27.4	12.3	14.2
적극 투자형	38.8	9.1	7.4
공격 투자형	8.9	3.3	2.9

주) 2007년 조사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 질문을 네 가지로 분류해 안정형과 안정 추구형을 하나로 묶음.

2 나이, 직업, 위험 추구 성향의 영향력 등 금융 위기 거치며 변화

또한 나이, 직업, 위험 추구 성향이 펀드 투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 위기 기간이 포함된 2007~2011년에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펀드 투자를 안 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이는 2007년 결과에서만 그렇게 나타났을 뿐 2011년부터는 연령과 펀드 투자 여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는 직업이 펀드 투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학생, 주부 등보다는 펀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학생이나 주부 등보다 펀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7년과 2011년, 2016년 모두에서 위험성향이 안정적인 사람보다는 위험에 중립적, 적극적, 공격적인 투자자가 펀드 투자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위험 중립형은 2007~2011년에 상승했다가 2011~2016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위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재! 뉴스스크랩북

2017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8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 개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01 ISA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ISA는 노후 자산 형성 지원이 목적인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 대상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일정 금액까지의 금융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합니다.

현재 일반형(총급여 5,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초과)과 농어민형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총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ISA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반형은 3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5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의무 가입 기간 안에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에 인출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ISA를 활용한 비과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03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 구입비·공연비 지출 소득공제 확대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는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2018년 1월 1일부터),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 원 추가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서 구입비·공연비 지출도 공제 한도가 100만 원 추가될 예정입니다.

0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를 사는 시민을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연간 75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2%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율이 12%로 상향 조정됩니다. 1년에 5,000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12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04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에 비해 감소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입니다.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7.03~2017.09)



· 자료 한국은행(KOSPI-증가, 원/달러 환율-평균 자료)